

가정

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



설교

안녕하세요, 우리 친구들! 엄마가 "00야~ 이리 와서 엄마 좀 도와줘~" 하시면 어떻게 해요? "네~ 엄마!" 하고 달려가죠. 성경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세요. 바로 하나님이에요!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"모세야, 모세야" 하고 부르셨어요. 모세가 "네, 하나님!" 하고 대답했어요.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. "모세야,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들을 도와줘.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. 네가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해줘." 하지만 모세는 무서웠어요. "저는 말도 잘 못해요. 바로 왕이 제 말을 들을까요?" 모세가 걱정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이 함께 가도록 도와주셨어요.

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세요. 하나님은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. 지금도 우리를 부르세요! "애들아, 내가 너희를 사랑해. 너희도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고 도와줘."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길 원하세요.

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. 모세가 무서워했을 때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주신 것처럼,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.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! 우리도 대답해요. 사랑하는 친구들,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할까요? 꿈이처럼 "네!" 하고 대답해요. 하나님이 "친구를 도와줘", "부모님 말씀 잘 들어", "예쁜 말 써" 하고 부르시면 "네, 하나님!" 하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어요.

예배 순서

사 도 신 경 다 같 이

찬 송 하나님 지켜 주세요 다 같 이

말 씬 봉 독 출애굽기 6:2~13 다 같 이

설 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설 교 자

말 씬 나 눔 다 같 이

합 심 기 도 다 같 이

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
자녀가 부모에게

주 기 도 문 다 같 이

- ★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눴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
- ★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.

찬 양

하나님 지켜 주세요



▶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

축복기도문

사랑의 하나님,
저희를 불러주셔서 고마워요.
모세처럼 저희도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.
무서울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어요.
착한 일 많이 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.
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. 아멘.

말씀나눔

1. 누가 “모세야~ 모세야~” 하고 불렀을까요?
2. 하나님이 우릴 부르신다면,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